

보도시점 (온라인) 2026. 10. 7.(수) 12:00
(지 면) 2026. 10. 8.(목) 조간

가가날부터 이어진 한글날, 기록 속에 숨겨진 100년의 이야기

- 10월 8일부터 22일까지 '국가 기록 서고 개봉기' 순차적 선보여
- 훈민정음 창제부터 한글 전용, 문화 확산까지 기록으로 조명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원장 이용철)은 한글날 제정 100주년을 기념해 '훈민정음과 한글' 관련 기록을 담은 유튜브 영상 '국가 기록 서고 개봉기' 3편을 제작하고, 10월 8일(목)부터 22일(목)까지 순차적으로 공개한다.

올해는 1926년 제정된 '가가날'에서 시작된 '한글날'이 10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다. 국가기록원은 훈민정음과 한글의 뛰어난 우수성과 가치를 널리 알리고자 기존 영상 프로그램명을 한글날 취지에 맞춰 '국가 기록 서고 개봉기'로 정비했다. 이번 영상은 '바르게 씀, 고르게 씀, 새롭게 씀'을 주제로 구성했으며, 관련 기록물과 함께 언어·문화·패션·산업 등 각 분야 전문가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다룬다.

>> 바르게 씀 - 애민 정신에서 세계의 언어로, 훈민정음의 과학성과 우수성 조명

첫 번째 편인 '바르게 씀, 훈민정음과 한글' 편에서는 방송인 파비앙의 소개로 훈민정음 창제 당시 세종대왕이 품었던 '애민(愛民)정신'이 한글 창제로 이어지는 과정과 한글의 과학적 우수성 집중 조명한다.

아울러 훈민정음해례본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고 한글이 세계 속의 언어로 뻗어 나가는 과정을 가다듬어, 한글이 한국인을 넘어 인류 전체를 이롭게 하는 보편적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보여준다.

>> 고르게 씬 - 일제강점기 수호에서 문맹 퇴치까지, 국민 삶을 바꾼 한글의 발자취

이어지는 '고르게 씬, 우리말모이' 편에서는 정재환 한글문화연대 대표와 박지원 KBS 아나운서가 일제강점기 조선어학회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조선말 큰사전'을 편찬하며 우리말의 뿌리를 지켜낸 숭고한 기록을 소개한다.

이와 함께, 1950년대 전국적으로 전개된 문맹 퇴치 운동과 정부 차원의 행정문서 한글 전용에 관한 지시, 한글 타자 경연대회부터 현재 개인용 컴퓨터(PC) 자판으로 이어지는 기록을 통해 한글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인 감격스러운 순간들을 당시 소장 자료와 함께 선보인다.

>> 새롭게 씬 - 가가날에서 5대 국경일로, 패션·산업으로 넓어지는 한글의 미래

마지막 주제인 '새롭게 씬, 나라의 경사 한글날' 편에서는 남도형 성우의 안내로 세계에서 유일하게 문자를 기념하는 '한글날'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긴다. 1926년 가가날로 출발해 대한민국 5대 국경일로 승격하기까지의 경과와 그 의미를 더하는 기념행사 기록을 상세히 전한다.

또한 주시경, 공병우 선생 등 한글 발전에 이바지한 인물들의 공로를 기리고, 이기식 (주)아이티젠 고문, 강병인 멋글씨가, 이상봉 한국패션디자이너 연합회장 등 각계에서 한글의 가치를 넓혀가는 전문가들의 생생한 현장 인터뷰를 담았다.

이용철 국가기록원장은 "이번 영상을 통해 한글이 단순히 '배우기 쉬운 글자'를 넘어, 누구나 읽고 쓸 권리를 되찾아준 힘이자 문화임을 알리고 싶었다"라며, "세종대왕의 간절한 염원에서 출발해 100년간 이어져 온 한글의 역사가 현대의 국민에게도 깊은 울림과 뜨거운 자부심으로 전달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국가기록원 서비스정책과	책임자	과 장	곽 정 (031-750-2221)
		담당자	연구관	김은형 (031-750-2046)



[참고] '26년 국가기록원 <국가기록 서고 개봉기> 제작 개요

※ 기존의 '언박싱 아카이브' 제목을 한글날 100주년 취지에 맞춰 한글 제목으로 전환

□ 추진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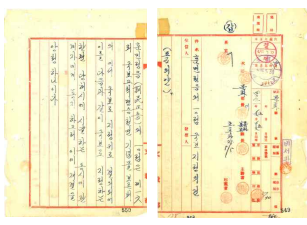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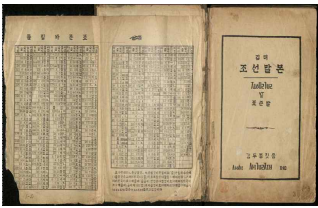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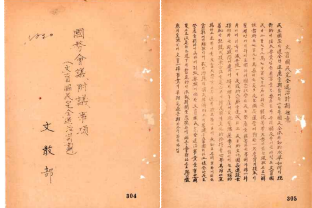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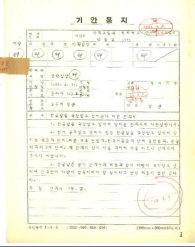
- 직관적인 뉴미디어 플랫폼(유튜브 등)이 강력한 국민 소통 채널로 변화함에 따라 국가기록을 동영상 콘텐츠로 제공('23년부터 계속)

□ 추진 내용

- (주제선정) '우리말, 우리글, 훈민정음-한글'
 - 한글날 제정 100주년(1926년, 훈민정음 반포 580돌) 및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위원회의 한국 최초 개최(2026.7.) 기념, '훈민정음과 한글'로 선정
- (주요기록) 기록원 소장 약 60건
 - 훈민정음 국보지정건, 세계기록유산 등록 자문회의, 김더 조선말본 조선어학회 한글날 기념식, 조선말큰사전 출판 서신, 문맹국민 완전 퇴치계획, 한글날 국경일 승격 협조 요청, 한글유공 정부포상 등
- (제작 편수·구성) 총 3편

구분 (공개일)	제목 및 주요 내용	출연자
1화 [10.8]	바르게 씀 훈민정음과 한글 • 세종의 한글 창제 배경과 「훈민정음 해례본」이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며, 그 영향력이 세계로 전파된 과정 확인	파비앙 방송인 이관규 국립국어원장
2화 [10.15]	고르게 씀 우리 말모이 • 조선어학회의 조선말큰사전 편찬과 문맹퇴치운동의 과정을 통해 우리말을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 환기	정재환 국어학자, 방송인 박지원 KBS아나운서 김주원 한글학회장 남궁호 세종시 문화체육국장
3화 [10.22]	새롭게 씀 나라의 경사 한글날 • 가갸날이 한글날로 국경일이 되기까지의 여정과 한글 발전에 이바지한 주요 인사의 공로로 한글날의 의미를 되새김	남도형 전문 성우 이건범 한글문화연대 신승보 행안부 의정담당관 이기식 ㈜아이티젠 고문 강병인 멋글씨가 이상봉 한국패션디자이너연합회장

붙임1 「국가기록 서고 개봉기- 한글 편」 주요 기록물

공개일	주요 기록물		
제1편 바르게 씀 10.8(목)			
	훈민정음 언해본(1977)	훈민정음외 10점 국보지정의 건(1958)	세계기록유산 등록관련 자문회의 (1997)
제2편 고르게 씀 10.15(목)			
	김더 조선말본(1922)	조선어학회 큰사전 완성보고(1957)	전국민문맹완전퇴치 계획(1953)
제3편 새롭게 씀 10.22(목)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건(1949)	한글날을 국경일로 정하는 건에 대하여(1966)	훈민정음 반포 550돌 한글날(1996)

붙임2 「국가기록 서고 개봉기- 한글 편」 타이틀

